

날짜: 5786 년, 10 월 24 일 (2026 년 1 월 13 일)

토라 문: Va'era (나타나다)

주제: 권력이 드러날 때

이번 주 토라 포션(Torah portion)은 성경적 구속의 핵심에 자리 잡은 하나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신성한 계시가 자유를 낳기 전, 먼저 반대 세력을 더욱 격렬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6 장은 구원이 아니라 신성한 정체성의 재정의로 시작됩니다. 즉, 여호와(YHWH)는 단순히 약속하는 분이 아니라 성취하시는 엘로힘(Elohim)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이 계시는 바로(Pharaoh)의 마음을 완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패턴은 에스겔의 두로와 이집트(Mitzrayim)를 향한 신탁, 그리고 누가복음 11 장에서 분열된 권세에 관한 예수와 하마시아(Yehoshua HaMoshiach)의 가르침에서도 반복됩니다. 이러한 텍스트들 전반에 걸쳐 저항은 부수적이거나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권에 대한 거짓 주장들을 폭로하고 몰아내는 수단이 됩니다. 랍비들의 해석은 특히 자유 의지, 사법적 완악함, 그리고 신성한 왕권이라는 교리를 통해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일관된 틀을 제공합니다.

출애굽기 6 장 2~3 절에서 엘로힘은 "나는 여호와이니라(Ani YHWH)"라고 선포하시며, 족장들에게 엘 샤다이(Ei Shaddai)로 알려졌던 계시의 양상과 이를 구분하십니다. 라쉬(Rashi)는 이 구분을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족장들은 약속을 받았으나 이스라엘은 그 성취를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라쉬의 출애굽기 6:3 주해). 신성한 이름의 계시는 그분의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발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조하르(Zohar)는 신성한 이름들을 현존의 양식으로 식별함으로써 이 주장을 심화시킵니다. 엘 샤다이는 절제와 자족을 의미하는 반면, 여호와라는 시간 내에서 제한 없는 신성한 행동을 나타냅니다 (조하르 II:25b-26a). 이러한 계시는 정체된 권력과 자기 충족성 위에 세워진 체제들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구속은 도피가 아니라 대면에서 시작됩니다.

랍비 전통은 바로의 마음이 반복적으로 완악해지는 것을 자유 의지의 틀 안에서 해결합니다. 탈무드는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로 인도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요마 38b). 신성한 완악하게 하심은 지속적인 거부 뒤에 따르는 것이지,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드라쉬 쉘레 모트 라바(9-10)는 재앙들을 이집트 이데올로기를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으로 제시하며, 각 재앙은 신격화된 힘이나 사회적 기반에 대응합니다. 이집트의 생명줄인 나일강이 먼저 타격을 입고, 이어 경제, 신체, 환경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심판은 잔혹함이 아니라 명확함 속에서 고조됩니다. 조하르(II:34b)는 이 과정을 분리를 통한 명료화인 비루르(birur, בִּירוּר)로 설명합니다. 실재를 볼 수 있도록 환상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는 경고가 파멸에 앞서고 이집트와 고센 사이에 구분이 도입되는 출애굽기 9 장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나타납니다. 탈무드는 이러한 심판을 진멸이 아닌 교훈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심판인 딘 메루마드(din melumad, דִּין מְלֻמָּד)로 특징짓습니다 (아보다 자라 4a).

에스겔 28~29 장은 출애굽기 패러다임을 국제적 규모로 확장합니다. 두로의 통치자는 자신을 신이라 선언하고(겔 28:2), 바로는 나일강의 창시자라고 주장합니다(겔 29:3). 이러한 주장들은 이른바 '자기 기원의 정치 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하르는 권력이 스스로를 근원으로 주장할 때, 생명의 신성한 흐름인 셰파(shefa, שֵׁפָא)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킨다고 설명합니다 (조하르 II:35a-36b). 권력의 상징들이 곧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에스겔은 즉각적인 파괴보다는 지연과 폭로를 강조하며, 회복의 약속으로 정점에 이릅니다(겔 28:25~26). 따라서 심판은 정당한 질서를 재확립하는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누가복음 11 장 14~22 절에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비난을 받으신 예수아는 랍비적 논리와 일치하는 원칙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방은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미드라쉬 탄후마(보 4)는 바로를 설득에 저항하며 퇴출이 필요한 '예체르 하라(yetzer hara, 악한 성향)'의 국가적 발현으로 규정합니다. 누가복음의 '더 강한 자'는 동일한 구속의 논리를 반영합니다. 자유는 불법적인 권위와의 협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성취됩니다. 이는 거짓 통치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해야 하는 하늘의 왕국, 즉 '말쿠트 샤마임(malkhut shamayim, מַלְכוּת שָׁמַיִם)'에 대한 랍비적 개념과 일치합니다. 베라콧 13a.

이번 토라 포션은 통일된 신학적 궤적의 출현을 보여줍니다. 신성한 심판은 맹목적인 힘이 아니라 피할 수 없게 된 진리입니다. 저항은 구속을 지연시키지만, 동시에 거짓된 주권을 폭로합니다. 마음의 완악함은 인간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 줍니다. 그러므로 해방은 단순히 압제로부터의 풀려남이 아니라 피조물과 국가, 그리고 마음 위에 신성한 왕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은 곧 계시이며, 이를 통해 왕권이 회복됩니다.

샬롬.